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31.(목) 09:15 < 10.31.(목) 석간 > 배포 2024. 10. 30.(수)

K-바이오, 우리 수출 제2의 반도체로 육성

- 엔데믹 쇼크 완전 회복 … 수출 붐업 주역으로 앞장선다
- '24년 바이오시밀러 허가 건수, CMO 수주 계약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무역보험 1조원, K-바이오데스크 12개로 대폭 확대 … 수출 150억불 달성 총력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방문하여 의약품 위탁제조(CMO)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이오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는 세계 1위의 CMO 능력을 갖추고 있는 K-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의 핵심기지이다.

현장에서 안 장관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수출은 10월에 13개월 연속 플러스 및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8월 이후 3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이 확실시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K-바이오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잠시 주춤했으나 이제는 펜데믹 이후 수출 15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상 궤도에 진입하였다"면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취득하고, CMO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수출 붐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수출(억불) : ('20년)139 → ('21년)163 → ('22년)163 → ('23년)133 → (~'24.9월)112, ('24년e)150
바이오시밀러 허가 건수 : (1위)6건('24년) → (2위)5건('19년) → (3위)3건('23년 등)
CMO 수주 현황(조원) : ('20년)1.94 → ('21년)1.16 → ('22년)1.78 → ('23년)3.50 → (~'24.10월)4.36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ADC(Antibody-Drug Conjugates: 항체-약물 접합체) 차세대 항암제*가 본격 양산되면 바이오 수출이 새로운 우상향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바이오 무역보험을 집중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K-바이오데스크**를 7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해나가는 등 바이오가 우리 수출의 제2의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암을 잡는 유도탄으로 불리며, 선택적 암세포 사멸 효과로 치료 효과 ↑, 부작용 ↓
** 현지 인력을 활용해 바이오 관련 우리 기업의 컨설팅, 현지 동향 제공 등을 수행하는 코트라 내 조직(뉴욕,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베이징, 호치민, 상파울루, 두바이)

정부는 이외에도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율을 '30년까지 15% 수준으로 끌어올려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바이오 제조혁신 및 전문인력 양성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代)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권승기	(044-203-4023)
				서두원	(044-203-40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바이오 수출현장 지원단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4. 10. 31(목), 09:15 ~ 10:45 (90분)

○ **장 소** :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2공장**

* 인천광역시 송도바이오대로 300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무역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부사장, 담당 상무 등
-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수출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사장, 코트라 부사장
- (**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주요 내용** : 바이오 생산현장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09:15~10:45 (90′)	90′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2공장 방문**
	(45′)	**❶ 생산라인 점검**
	(45′)	**❷ 수출현장 지원단 면담** ▸ 바이오 산업 동향·전망 브리핑 ▸ 자유 토론

참고2 장관 모두발언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님, 전춘우 코트라 부사장님 등
우리 수출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관기관 참석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이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넘어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CMO(위탁생산) 능력을 갖추고(우리나라 CMO 능력은 2위)
올해 역대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의 핵심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방문하게 되어 굉장히 뜻 깊습니다.

<수출 메시지>

내일이면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
우리 수출을 굳건하게 받치는 품목부터
방산, 전력망 등 우리 수출을 더욱 다채롭게 하는 업종까지
수출현장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美 대선,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10월에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8월부터 3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이 확실시되는 등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4.上 상위 10대 수출국 수출증감률(WTO, %) : 1위중국(홍콩포함, +5.2), 2위미국(+2.3), 3위독일(△1.5), 4위네덜란드(△5.8), 5위이탈리아(△1.1), 6위일본(△3.6), **7위한국(+9.1)**, 8위프랑스(△2.5), 9위멕시코(+2.6), 10위캐나다(+0.2)

바이오는 글로벌 펜데믹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확고한 수출 동력으로서 자리매김 해 오고 있습니다.

* '22년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수출 163억불로 역대 최대 기록,
올해 1~9월 112억불로 동기간 역대 3위 기록 중(펜데믹 기간 제외시 역대 최대)

글로벌 기업간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역대 최대 바이오시밀러 허가, CMO(위탁생산) 수주계약 체결 등을 통해
K-바이오는 우리 수출의 최선봉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 '24년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미국·유럽 허가 건수는 6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물실호기(勿失好機))고 했습니다.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
바이오를 우리 수출 붐업의 확고한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정책방향〉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을 넘어
'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을 추가하기 위해
바이오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바이오 경제무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분야 수출기업에 대해
금년 4분기에 1조원 규모의 수출보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시장에 설치된
K-바이오데스크를 7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하여
인허가, 통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현지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난 6월에 지정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곳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차세대 항암제*를 본격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수출의 우상향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암을 잡는 유도탄으로 불리며, 선택적 암세포 사멸 효과로 치료 효과 ↑, 부작용 ↓

셋째,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24.4월 발표)에 따라
'30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는 한편,
소위 '수퍼 乙'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기업을 양성하여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율을 '30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24년 5%)

바이오가 우리 수출의 제2의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는 제2의 메모리 반도체,
CMO는 제2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연이어 들려오는 의약품 수주 및 임상시험 통과 소식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K-바이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처럼 기업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며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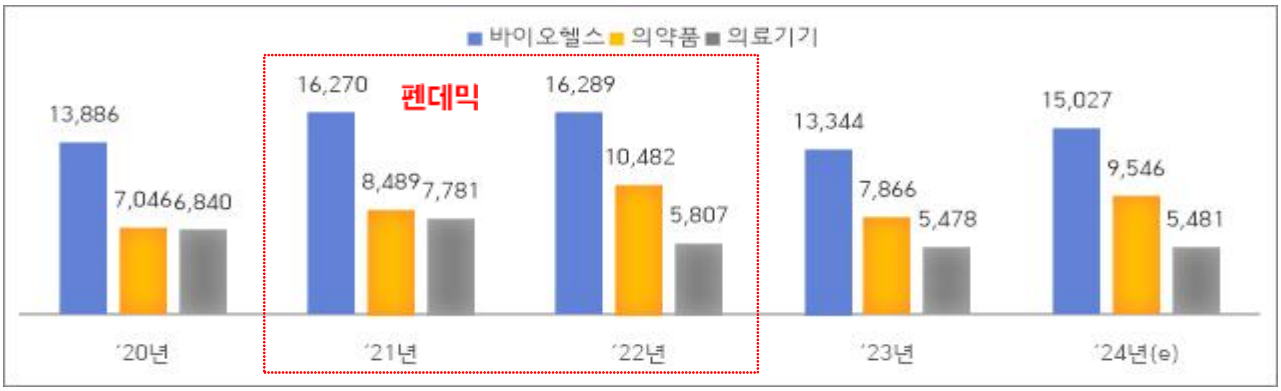
참고3 **바이오 수출 현황 및 전망**

1. 바이오 수출 동향

□ **코로나** 영향으로 **'21~'22년** 바이오헬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엔데믹** 이후 방역물품 및 백신 수요 감소로 **'23년 수출 마이너스 전환**

(단위: 백만불, %)

품 목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9월	4분기[e]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 바이오헬스	13,886(55.9)	16,270(16.8)	16,289(0.1)	13,344(△18.1)	11,151(13.8)	3,876(9.2)
- 의약품	7,046(71.8)	8,489(20.5)	10,482(23.5)	7,866(△25.0)	7,102(23.6)	2,444(15.4)
- 의료기기	6,840(42.3)	7,781(38.7)	5,807(△25.4)	5,478(△5.7)	4,049(0.0)	1,432(0.1)



□ **바이오시밀러, CMO**의 수출 증가로 **'24년 바이오헬스 수출 회복세**

○ **(바이오시밀러)** 미국·EU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권장** 및 **지속적인 제품 출시**(FDA 승인 등)**·수주 성공**으로 **성장세 기록**

구 분	'17년	'19년	'21년	'23년	'24년
미국·유럽 바이오시밀러 허가 건수(누적)	3건(7건)	5건(15건)	3건(19건)	3건(24건)	6건(30건)

○ **(CMO)**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등 글로벌 소재 제약기업과의 **지속적인 수주 계약 체결**로 **역대 최대 규모 달성**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수주실적 (공시 기준)	1.94조원	1.16조원	1.78조원	3.50조원	4.36조원

○ **(의료기기) 임플란트·의료용 전자기기** 등 주력상품의 실적 호조세 및 **일본향 수출 증가**('24.1~8월 누계, 전년비 8.3% 증가)**로 증가세 유지**

* 임플란트(의치) : ('23) 788백만불(11.6%) → ('24.1~9) 653백만불(17.4%)
방사선영상진단 : ('23) 1,003백만불(2.2%) → ('24.1~9) 743백만불(3.8%)

2. 향후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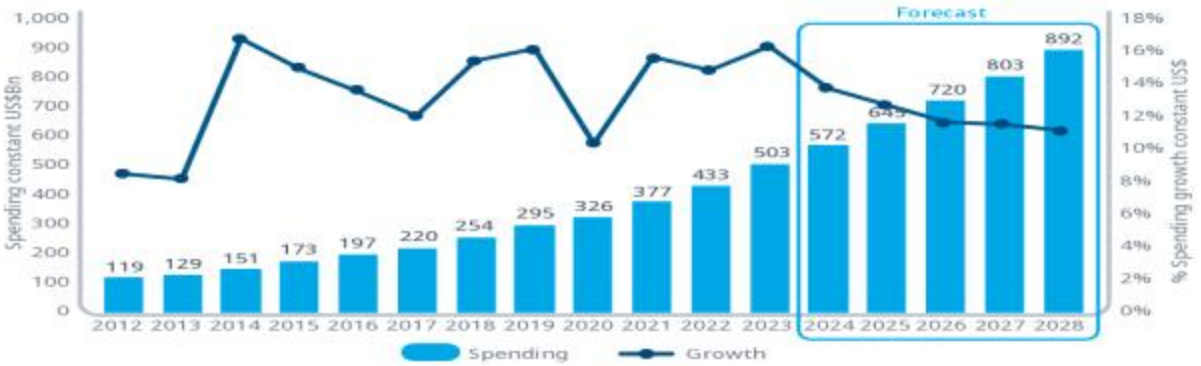
□ **(글로벌시장 전망)**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 예상**

○ **글로벌 의약품**(바이오의약품+케미컬의약품) **시장**은 '24년 1조 7,360억 달러에서 **'28년 2조 2,380억 달러**로 年 **3~6% 성장 전망**

* 바이오의약품 : 생물 유래 물질을 사용해 생산되는 약품으로 백신, 인슐린 등이 해당
케미컬의약품 : 화학물질 합성으로 생상되는 약품으로 항생제, 진통제 등이 해당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4년 5,720억 달러에서 **'28년 8,920억 달러**로 年 **9.5~12.5% 성장 예상**(※ '23년 반도체 시장은 5,538억 달러 규모)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



* 출처 IQVIA(2024.1)

□ **(수출 전망) CMO 공장 가동률 상승**, 미국, EU의 **바이오시밀러 사용 장려** 등의 기회 요인으로 **수출확대 지속 전망**

○ **(바이오시밀러)** 점진적인 **美보험 환급 본격화** 등 **미국·EU의 약가 인하** 및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 등으로 수출 증가 전망

○ **(위탁생산(CMO))**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등 글로벌 소재 제약기업과의 **지속적인 수주 계약 체결로 수출 확대 지속 전망**

○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성장**과 **첨단기술 개발 활성화**(AI 의료기기)로 유망분야 투자를 통한 **신시장 진출 기대**